

‘있다’의 의미 · 통어

이 춘 근*

《차 례》

- | | |
|---------------|----------|
| 1. 들어가기 | 4. 소유 표현 |
| 2. 의미역들과 연결규칙 | 5. 맺음말 |
| 3. 존재 표현 | |

1. 들어가기

존재를 나타내는 상태풀이씨로 알려진 「있다」는 존재 표현에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소유 표현에도 사용된다. 그리고, 상태 뿐만 아니라 행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 (1) ㄱ. 책이 철수에게 있다.
 ㄴ. 철수가 책이 있다.
 cf. 철수가 책을 가졌다/가지고 있다.
 ㄷ. 신은 있다.
 ㄹ. 우리는 여기에 있다.

*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1ㄱ)은 책의 소재점이 「철수」라는 의미를 나타낸 존재 표현이다. 반면에, (1ㄴ)은 「철수가 책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의 소유 표현이다. (1ㄴ)은 전형적인 소유 표현인 「가지다」월과 의미역틀과 통어 구조는 다르지만,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¹⁾ (1ㄷ)은 소재점이 표시되지 않은 존재 표현이다. (1ㄷ)은 상태가 아닌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와 같은 「있다」의 여러 가지 쓰임을 구별하여 설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1ㄱ)과 같이 존재를 나타내는 것을 「있다」¹⁾, (1ㄴ)과 같이 소유를 나타내는 것을 「있다」²⁾, (1ㄷ)과 같이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것을 「있다」³⁾, (1ㄷ)과 같이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있다」⁴⁾ 등으로 구분하여 그 의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의미역틀을 달리 가지는 다른 어휘, 즉 동음이의어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동일 의미역틀을 가진 하나의 풀이씨 「있다」가 다양한 통어 구조로 실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1ㄱ, ㄴ)은 동일한 의미역틀을 가진 하나의 풀이씨 「있다」가 표현의 과정에서 통어 구조가 달라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ㄱ. 있다 [주체, 위치]²⁾ (잠정적)

1) 「의미역틀」은 격문법가들의 「격틀(case frame)」과 같은 개념이다. 본래 「격」은 굴곡어에서 굴곡어미의 형태변화와 관련된 문법범주이다. 그런데 굴곡어미가 표시하는 것이 의미관계인지, 아니면 통어관계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고 그에 따라 「격」의 개념도 달라진다. 여기서는 임자씨류의 풀이씨에 대한 의미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역」이란 말을 사용한다. 「의미역틀」은 풀이씨가 그 어휘의미를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 허용하는 의미역의 목록으로 어휘부에서 풀이씨의 어휘내향에 동계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의미역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2. 의미역틀과 연결 규칙」에서 후술할 것이다.

2) 「있다」의 의미역틀을 [대상, 위치]로 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대상이란 Chafe의 「patient」나 Gruber의 「theme」, Fillmore나 Cook의 「object」에 해당한다. Chafe(1970:95-104), Gruber(1976:37-52), Cook(1979:50-52) 참조. 그러나, 의미역(=심층격)은 어디까지나 풀이씨에 대한 임자씨함의 의미 관계이므로 풀이씨와의 관계에 따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ㄱ) 철수에게 책이 있다.

ㄴ) 철수가 책을 던졌다.

위의 두 월에서 두 번째 논항은 동일한 임자씨(책)로 되어 있지만, 풀이씨와의 의미 관계는 다르다. ㄱ)에서는 상태(있다)의 주체이고, ㄴ)에서는 동작(던지다)의 대상이다. 따라서 이 논의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대상(의미)역」으로 처리하던 많은 것을 「주체(의미)역」으로 처리할 것이다. 풀이씨의 의미에 따라 주체역에는 상태주(경험주 포함), 행위주(=동작주) 등의 하위

ㄴ. 책이 철수에게 있다.

ㄷ. 철수가 책이 있다.

(2ㄱ)에서 주체역이 통어 구조의 임자말로 실현되면 (2ㄴ)으로, 위치역이 통어 구조의 임자말로 실현되면 (2ㄷ)으로 통어 구조가 짜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있다’에 의한 존재 표현과 소유 표현을 더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작은 의미 차이까지 포착하여 설명할 수 있으나, 동음이의어를 양산하여 어휘부를 복잡하게 만든다.³⁾ 후자는 다양한 의미를 포착하면서도 동일 어휘의 다양한 사용으로 처리하여 간결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유한한 기억 요소의 무한한 사용은 인간 언어의 중요한 특징이다. 따라서 우리의 문법 설명도 이런 특징을 잘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후자의 입장에서 존재 표현과 소유 표현을 중심으로 ‘있다’의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 살피고 그 의미·통어적 특성을 정리코자 한다.

2. 의미역들과 연결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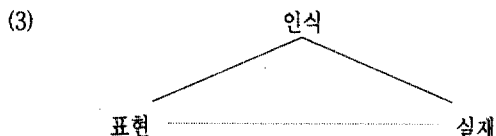
우리가 사는 세계는 공간, 개체, 현상 등의 연속체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은 개체가 존재하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배경이다. 인간은 존재론적 측면에서는 개체의 일부이지만, 인식론적 측면에서는 비인간 개체들과 구별되는 인식의 주체이다. 세계를 인식하여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존재는 인간이다. 언어 활동에서 인간의 지위는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현상은 상태와 사건을 일컫는다. 상태란 공간과 개체의 존재 방식이나 속성 따위를 말한다. 사건이란 상태나 조건의 변화, 개체나 인간의 움직임, 행위 등을 말한다.

우리는 이 세계의 일부를 경험하며 그것을 머릿속에 정보로 저장한다. 필요할 경우, 우리는 저장된 정보의 일부를 언어화하여 표현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표현하는

의미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

3) 양정석(1995:212-223)에서는 ‘있다’를 네 개의 동음이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반면,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1992:3421)에는 하나의 어휘로 보고 있다.

세계는 실재의 세계가 아닌 우리의 내면에 인식한 세계이다.



(3)에서 알 수 있듯이 표현과 실재 세계와의 관계는 간접적이다.(점선으로 연결됨)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저장된 인식의 세계다. (3)의 <표현-인식-실재> 세 자리에 각각 순서대로 <날말-개념-개체>를 대치하면, 날말이 가진 의미의 성격을 보여준다. 또, <월-관념-현상>을 대치하면 하나의 월로써 표현된 현상의 의미적 성격을 알 수 있다. 하나의 날말로 개념을 나타내든, 하나의 월로 어떤 관념을 표현하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실재의 세계 그 자체는 아니다.

우리가 인식한 세계(관념의 세계)를 표현할 때, 공간, 개체 등은 임자씨향으로, 상태나 사건 등의 현상은 풀이씨로 표현한다. 결국 우리가 표현하는 경험은 ‘어떠하다’류의 상태, ‘어찌되다’류의 과정, ‘어찌하다’류의 사건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표현에서는 풀이씨가 항상 그 중심이 된다.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풀이씨는 그 어휘적 의미를 실현시키기 위해 임자씨향을 필요로 한다. 임자씨향은 의미역이 없는 형태로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지만, 풀이씨에 의해 선택되어 월의 요소가 될 때에는 풀이씨와 일정한 의미 관계를 형성한다.⁴⁾ 이 의미 관계가 의미역이다. 의미역은 임자씨향이 풀이씨와 문맥을 형성한 뒤 풀이씨에 의해 임자씨향에 부여된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풀이씨는 그 풀이씨로 실현될 월의 구조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청사진은 풀이씨의 어휘 정보로 어휘부에 표시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의미역들은 풀이씨가 가진 이러한 설계도(월의

4) 풀이성을 가진 임자씨는 의미역들을 하위정보로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ㄱ)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임박했다.

라는 월에서 임자말 명사구인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서 ‘공격’은 [+풀이성]의 의미바탕을 가져서 ‘공격’ [주체, 대상]의 의미역들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의미 구조에 대한 정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풀이씨가 하나 이상의 의미역들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중요 요소와 부수 요소를 고려하면 하나의 풀이씨는 하나의 의미역들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⁵⁾ 동일 형태(음성 실현)를 가진 풀이씨가 의미역들을 달리 가진다면 동음이의어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 (4) ㄱ. 철수가 밥을 먹었다.
 나. 철수가 10시에 밥을 먹었다.
 다. 철수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르. 철수가 젓가락으로 밥을 먹었다.
 마. 철수가 순이하고 밥을 먹었다.
 바. 먹다 [행위주, 대상]

(4ㄱ)~(4ㄱ)의 표현은 풀이씨 ‘먹다’에 의해 어떤 사건(상태나 과정이 아닌)을 표현한 것이다. (4ㄱ)~(4ㄱ)에서 사용된 ‘먹다’라는 풀이씨는 각각 다른 류의 의미역들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부수 요소를 고려한다면 하나의 의미역들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먹다’라는 풀이씨는 그 어휘 의미의 실현을 위해 최소한 (4ㄱ)에서 제시된 의미역들을 가진다.⁶⁾ 이 의미역들은 ‘먹다’를 서술어로 하는 월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곧, ‘먹다’가 서술어가 되는 월에서는 ‘주체역’과 ‘대상역’을 가진 요소가 필요하고 그 가운데 ‘주체역’ 자리에는 [+유정]의 의미 바탕을 가진 암자씨

5) 결합가 이론에 따르면 필수 요소와 임의 요소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필수요소-임의 요소’ 구분 대신 ‘중요 요소-부수 요소’ 구분을 사용한다.

첫째, ‘필수 요소-임의 요소’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책이 가방에 있다.’라는 월에서 논자에 따라 위치 논항의 필수-임의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둘째, 실제의 담화상황에서는 필수 요소라도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필수 요소가 실현되지 않는다[생략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색하다. 월 구성 요소의 중요도 여부는 말할이의 담화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6) 물론, ‘철수가 10시에 식당에서 젓가락으로 밥을 먹다.’라는 월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의미역들은 ‘먹다 [주체, 시간, 장소, 도구, 대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풀이씨의 어휘 의미 실현에 최소한으로 필요로 하는 논항(중요 논항)만을 표현하면 (4ㄱ)과 같다. 나머지 의미역을 받는 논항은 잠재적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간주한다.

가 필요하다는 정보(선택 제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풀이씨의 의미역틀만으로는 그 풀이씨에 의해 실현되는 월의 통어 구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대개 주체 논항은 임자말로, 대상 논항은 부림말로 실현된다는 정도의 설명이 가능할 뿐이다. 이것은 통어 관계를 추상화된 의미 관계로 간주하여 의미 관계와 통어 관계를 동일시하는 관점이다. 그런데 통어 관계와 의미 관계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때는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관점으로는 동일 풀이씨의 상이한 통어 구조 실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 (5) ㄱ. 인부가 바위를 움직이다.
 ㄴ. 바위가 움직이다.

(5ㄱ, ㄴ)의 경우 두 월의 통어 구조가 다르다. 위의 관점으로는 의미역틀도 [주체, 대상], [주체]로 각각 달라서 동음이의어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앞 장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 동음이의어를 남발하여 어휘부를 복잡하게 만든다.

위의 (1)을 다시 가져와서 설명한다.

- (1') ㄱ. 책이 철수에게 있다.
 ㄴ. 철수가 책이 있다.

(1'ㄱ)과 (1'ㄴ)도 통어 구조가 다르다. 따라서, 통어 관계와 의미 관계를 동일시하는 관점에서는 이 두 월의 '있다'가 다른 의미역틀을 가진 동음이의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곧 (1'ㄱ)은 [상대주, 위치], (1'ㄴ)은 [행위주, 대상]의 의미역틀을 각각 가진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관점으로는 의미적으로 연관된 풀이씨들로 실현된, 대응 관계에 있는 월의 유사성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 (6) ㄱ. 철수가 영이에게 꽃을 주었다.
 ㄴ. 영이가 철수에게서 꽃을 받았다.
 ㄷ. 주다/받다 [주체, 위치, 대상]

- (7) ㄱ. 철수가 영이를 때렸다.
 ㄴ. 영이가 철수에게 맞았다.
 ㄷ. 때리다/맞다 [주체, 대상]
 (8) ㄱ. 나는 영이가 좋다.
 ㄴ. 나는 영이를 좋아한다.
 ㄷ. 좋다/좋아하다 [주체, 대상]
 (9) ㄱ. 포수가 범을 잡았다.
 ㄴ. 범이 포수에게 잡혔다.
 ㄷ. 잡다/잡히다 [주체, 대상]

(6~7)의 두 월은 동일한 현상을 시점을 달리하여 표현한 것인데, 사용된 풀이씨가 다르지만 입자씨항 사이의 연관성이 분명하다. 곧 두 풀이씨가 동일한 의미역들을 가지지만 시점에 따라 통어 구조가 달리 실현된 것이다. 주체역 논항에 시점이 주어지면 (6ㄱ)과 (7ㄱ)으로, 위치역이나 대상역 논항에 시점이 주어지면 (6ㄴ)과 (7ㄴ)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앞의 관점으로는 이러한 의미적 연관성을 설명하기가 불충분하다. (8~9)은 파생 표현으로서 파생전 표현과의 대응 관계가 분명한데, 역시 의미역들만으로는 충분히 그 대응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의미역들의 불충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미역들과 그것에 의해 사상된 월의 통어 구조 사이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휘부에 이러한 연결 규칙이 어휘부의 어휘 규칙의 일부로 등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⁸⁾ 다음과 같은 연결 규칙을 가정할 수 있다.

(10) 가. 연결 규칙 1

- ㄱ. 입자씨항이 둘 이상일 때, 계층성이 높은 의미역을 부여받은 입자씨항이 계층성이 높은 월성분으로 실현된다.⁹⁾

7) 의미역들을 ‘주다/받다 [주체, 상대,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철수가 꽃밭에 물을 주다’라는 월을 고려하여, ‘위치’로 처리하였다.

8) 송복승(1995), 양정석(1995)에 우리말의 연결규칙에 관한 논의가 나와 있다. 연결 규칙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춘근(1997)에서 시도해 보았다. 여기서는 ‘있다’의 여러 표현을 설명하기에 필요한 것만 제시한다.

9) 월성분의 계층성은 통어 구조상의 중요도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대부분의 통어 구조에서 풀

1. 의미역과 월성분의 계층성

주체역(행위주>상태주)>대상역>위치역

임자말>부림말(/기움말)>상황말¹⁰⁾

나. 연결 규칙 2

시점이 주어지는 임자씨항은 계층성과 상관없이 임자말로 실현된다.¹¹⁾

이말은 임자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임자말이 가장 계층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10) 기움말은 부림말과 상응하는 중요 요소로 '나는 콩밥이 싫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따위의 월에 있는 두 번째 성분에 해당하는 요소다. 학자에 따라서는 기움말로 인정하기도 하고 풀어마디의 임자말로 간주하기도 한다. '할머니는 콩밥이 싫으셨다.', '아버지가 대학생이 되셨다.', '할아버지는 학자가 아니셨다.' 등의 표현에서 임자말 일치소(-시-)와의 일치 관계로 볼 때 둘째 성분이 임자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시-'의 임자말 일치소 기능과 기움말의 주격 실현 문제는 유동석(1996)에서 상세하게 논증되었다. 상황말은 임자말, 부림말(/기움말)을 제외한 상황적 요소를 표현한 임자씨항으로 된 성분을 말한다. 위치, 방편, 원인, 공동의 의미역은 대개 상황말로 실현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중요 상황말은 보충어이고, 부수 상황말은 부가어가 된다. 부림말(/기움말)과 중요 상황말은 통어 구조상 풀이씨의 자매항인 보충어에 해당한다.

- 11) 시점이란 말할이가 문장 속의 어떤 요소에 공감(empathy)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시점이 주어지는 요소는 임자말로 실현된다. 아래 예로 든 표현의 경우,

(1) 때리다/맞다 [주체, 대상]

(2) ㄱ. 철수가 영이를 때리다.

ㄴ. 영이가 철수에게 맞다.

주체에 시점이 주어지면, (2ㄱ)처럼 표현되고, 대상에 시점이 주어지면, (2ㄴ)처럼 된다. 김일웅(1988) 참조. 그러나, 박선자(1992)에서의 지적처럼 말할이의 공감도라는 것을 담화상황에 의존적인 요소로 간주한다면, 층위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는 언어 표현이라는 것이 현상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닌, 말할이의 인식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따라서 현상 인식에는 시점이 분명히 반영된다는 점에서, 시점은 기저월 생성 단계에서 작용한다고 간주한다. 어쩌면 위의 (2ㄱ)과 (2ㄴ)은 동일 현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고, 인식의 차이는 시점에 따라 생겨난다고 말할 수 있다.

3. 존재 표현¹²⁾

모든 인간 경험은 일단 인간 자신과 세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경험 주체인 인간이나, 경험 대상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험이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언어 표현의 기본은 존재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언어 표현은 존재 표현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앞의 (47)도 ‘철수’와 ‘밥’의 존재를 이미 함의하고 있다.

아래의 예문으로 존재 표현의 의미역들을 살핀다.

(11) ㄱ. ?책이 있다.

ㄴ. ?철수가 있다.

(11ㄱ, ㄴ)은 얼핏 보면 존재 풀이써 ‘있다’의 어휘 의미가 충분히 실현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 언어 생활에서 ‘무엇이 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의 존재 위치를 아울러 표현해야 충분하다.¹³⁾ 위치역 항의 필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필수성 대신 중요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아래의 월에서,

(12) 철수가 운동장에서 책을 가방에 넣었다.

12) 존재 표현을 좁은 의미로 사용하여 처소 표현과 구별하기도 한다. 홍윤표(1995:468-472)에서는

ㄱ. NP이 있다.

ㄴ. NP이 X에 있다. (‘있다’를 ‘있다’로 바꿈)

를 구별하여 (ㄱ)을 존재 표시, (ㄴ)을 처소 표시라 하여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처소 표시는 항상 존재 표시를 함의하여, 표면에 표출될 때는 (ㄴ)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여기서는 존재 풀이써 ‘있다’가 기저에서부터 주체 논항과 함께, 위치 논항을 중요 요소로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ㄱ)과 (ㄴ)의 기저 구조를 (ㄴ)으로 간주한다.

13) 일상적 언어 생활을 벗어난, 형이상학적 논의에서 어떤 사물의 존재 여부를 따질 때에는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테면 앞의 (12) ‘신은 있다.’와 같은 월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신은 (어딘가에) 있다.’ 정도의 의미로 본다면 위치역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운동장에서’는 부수 요소이지만, ‘가방에’는 중요 요소이다. 풀이썬에 따라 위치역은 중요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존재 표현으로 쓰인 ‘있다’의 의미역들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13) 있다 [상태주, 위치]

‘상태주’의 자리에는 [±유정] 임자썬함이 가능하다.

(14) ㄱ. 철수가 방에 있다.

ㄴ. 책이 가방에 있다.

‘위치’의 자리에는 ‘통과점’을 제외한 모든 하위 범주가 가능하다.¹⁴⁾

(15) ㄱ. ?틈이 위에서 아래로/에 비스듬히 있다.

ㄴ. 회의가 10시에 있다.

ㄷ. 모임이 상담실에서/*에 있다.

ㄹ. 출구가 밑으로 있다.

(15ㄱ)은 ‘출발점-방향(도달점)’인데, 걸쳐서 존재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가능하다. (15ㄴ)은 ‘시간’인데 ‘상태주’와 의미 관계가 형성되면 가능하다. (15ㄷ)은 ‘장소’인데, 이 경우 ‘존재점’으로 하면 틀린말이 된다. (15ㄹ)은 ‘방향’인데, 역시 가능하다. 그런데, ‘장소’가 실현되면 ‘있다’의 의미가 달라져서 행위 표현이 된다.

(16) ㄱ. ?철수는 방에서 (우두커니) 있다.

ㄴ. 철수가 방에서 논다.

ㄷ. *철수가 방에서 없다.

ㄹ. *책이 가방에서 있다.

(16ㄱ)은 ‘장소’가 실현되었는데, 이 때의 ‘있다’는 전형적인 존재 표현(철수는 방에 있다)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똑같은 존재 표현인 (16ㄷ)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14) ‘위치역’의 하위 범주엔 ‘존재점’, ‘장소’(-에서), ‘작용점’(자외선이 피부에 해롭다), ‘출발점’, ‘통과점’, ‘도달점’, ‘시간’, ‘방향’(-로)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잘 보여 준다. 이 때의 ‘있다’는 ‘방에서 무엇을 하는’의 의미를 지닌 행위 표현이라 할 수 있다. (16ㄱ)은 (16ㄴ)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 (16ㄷ)이 불가능한 것은 주체역의 자리에 [-유정]이 실현되어(행위주역이 아니므로), 행위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치역에 ‘장소’의 의미역이 실현된 ‘있다’[(16ㄱ)]는 다른 행위 풀이씨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때는 대개 주체역에는 추상적인 동작성 임자씨가 실현되어야 자연스럽다.¹⁵⁾

한편, 위치역 자리에 [+유정]의 임자씨항이 실현되면 「-에게」 표지가 붙는다.

- (17) ㄱ. 책이 철수에게 있다.
 ㄴ. 생선이 고양이에게 있다.

존재 표현의 통어 구조는 상태주역이 임자말로, 위치역이 상황말로 실현되어 짜인다. 이것은 앞의 (10가)의 <연결 규칙 1>에 따른 것이다.

- (18) ㄱ. 있다 [상태주, 위치]
 ㄴ. 철수가 방에 있다.
 임자말 상황말

위에서 주체역인 ‘철수’가 의미역 층위상 위치역보다 높기 때문에, 임자말로 실현되었다.

‘있다’의 높임 표현으로는 ‘계시다’와 ‘있으시다’가 있다. 흔히 ‘계시다’는 직접 높임, ‘있으시다’는 간접 높임이라 한다.

- (19) ㄱ. 할아버지께서 방에 계시다
 ㄴ. *할아버지께서 방에 있으시다.
 ㄷ. 저 할아버지께서 손자가 있으시다.
 ㄹ. *저 할아버지께서 손자가 계시다.¹⁶⁾

15) ㄱ. 폭발이 레바논에서/*에 있었다.
 ㄴ. 경기가 사직구장에서/*에 있다.
 김일웅(1984)에서도 이런 ‘있다’를 동작동사로 보고 있다.

(19ㄱ)에서 '계사다'는 임자말인 '할아버지'가 [+높임]의 임자씨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있으시다'는 불가하다. '있으시다'는 소유 표현의 높임을 나타내는 풀이씨로 (19ㄷ)처럼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19ㄷ)에서도 '있으시다'에 [+높임](-시-)이 실현된 것은 역시 임자말의 '할아버지' 때문이다. 임자말이 똑같이 [+높임]의 자질을 가진 것인데도 (19ㄱ, ㄷ)은 문법적이고 (19ㄴ, ㄹ)은 비문법적이다.

그러면, (19ㄱ, ㄴ)과 (19ㄷ, ㄹ)의 문법성의 차이는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임자말의 [+높임] 자질로는 설명할 수 없다. 통어 구조상으로 똑같은 임자말이지만, (19ㄱ, ㄴ)과 (19ㄷ, ㄹ)의 임자말 자리에 있는 임자씨항은 그 의미역이 다르다. (19ㄱ, ㄴ)의 임자말 '할아버지께서'는 주체역-임자말이고, (19ㄷ, ㄹ)의 임자말 '저 할아버지께서'는 위치역-임자말이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역의 차이에 의해서 문법성의 차이를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존재표현의 '있다'가 존재 상태의 표현이 아닌 존재 행위의 표현으로 쓰일 때가 있다.

- (20) ㄱ. 나 여기(에) 있다/있오마.
 ㄴ. 너 여기에 있어라.
 ㄷ. 우리 여기에 있자.
 ㄹ. 철수는 가만히 있으려고 노력했다.
 ㅁ. 예부터 학계에서 그런 주장들이 있어 왔다.

(20)은 상태풀이씨인 '있다'가 동작풀이씨처럼 쓰이는 경우다. 현재형, 약속형, 명령형, 청유형, 통제성 구문, 「-어 오다」 접속 등이 다 가능하다. 이것은 전형적인 동작풀이씨가 쓰이는 환경이다. 또 (20)의 의미적 대립 표현은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다.

- (21) ㄱ. 나 저리로 간다/가마.

16) 근대국어 시기에는 이런 표현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父母 疾' 겨시거돈(女四書諺解/1736/2:14b), '曾子 疾' 겨사(論語諺解/重刊本/1631/2:29b) 등의 표현이 보인다. 홍윤표(1994:350) 참조.

- ㄴ. 너 저리로 가거라.
- ㄷ. 우리 저리로 가자.
- ㄹ. 철수는 딴 곳으로 가려고 노력했다.

행위 표현에 쓰인 '있다' 표현과 의미적으로 대립되는 표현에는 전형적인 동작풀이씨인 '가다'가 쓰인다는 점도 (20)의 '있다'가 행위를 표현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이 '있다'가 동작(행위)을 표현한 것이지만, 여전히 존재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위의 (21)과 (20)을 대조해 보면, '있다'의 의미는 [머무름], 즉 [-이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아래의 (22)에서 '계시다'는 가능하나, '있으시다'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행위 표현의 '있다'가 여전히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증거다. 곧 (22)의 임자말 '할아버지'는 다른 존재 표현(존재 상태 표현)으로 쓰이는 '있다'의 임자말과 동일한 주체역-임자말이다.

- (22) ㄱ. 할아버지께서 여기에 계시다/있으시다.
 ㄴ. 할아버지, 여기에 계세요/있으세요.

그러나, 동일한 존재풀이씨인 '없다'의 경우는 행위 표현이 불가능하고 존재 상태 표현으로만 쓰인다.

- (23) ㄱ. *나 여기에 없는다/없으마.
 ㄴ. *너 여기에 없어라.
 ㄷ. *우리 여기에 없자.
 ㄹ. *철수는 계속 없으려고 노력했다.
 ㅁ. *예부터 학계에서 그런 주장들이 없어 왔다.

(20)과 같이 쓰인 '있다'는 그 의미역들이 상태 표현의 '있다'와는 다르다. 풀이씨가 상태를 표현한 것인가, 동작(행위)을 표현한 것인가는 현상 자체의 존재론적 차이가 크므로, (20)처럼 사용된 '있다'는 상태를 표현하는 '있다'와 구분하여 '있다'² 정도로 하여 동음이의어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 의미역들은 다음과 같다.

(24) 있다² [행위주, 위치] (존재 행위 표현)

4. 소유 표현

존재 풀이씨 '있다'로 소유의 의미를 표현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 (25) ㄱ. 철수가 책이 있다.
 ㄴ. 김씨가 아들이 있다.

소유 표현이란 존재 표현과는 동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존재 표현을 함의하고 있다. (25ㄱ)의 경우 '책이 철수에게 있다', (25ㄴ)의 경우 '김씨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존재 표현을 함의하고 있다.

소유 표현으로 쓰인 '있다'는 그 의미역들을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26) 있다 [주체, 대상] (잠정적-추후 수정)

이렇게 설정하면 전형적인 소유 표현에 쓰이는 풀이씨인 '가지다'의 의미역들과 동일하여 '소유'라는 의미를 포착하는 데 유리한 듯하다.

- (27) ㄱ. 가지다 [주체, 대상]
 ㄴ. 철수가 책을 가지다.
 주체 대상
 ㄷ. 철수가 책이 있다.
 주체 대상

그러나, (27ㄴ)과 (27ㄷ)은 의미 차이가 분명히 있다. (27ㄴ)에서는 소유풀이씨 '가지다'가 [+동작]의 의미 자질을 가진 듯이 보이나, (27ㄷ)의 '있다'는 [-동작]이다. (27ㄴ)은 '소유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면, (27ㄷ)은 '소유 상태'만을 표현한 것이어서 다같은 소유 표현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의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아래의 (28

ㄱ, ㄴ)이 다 가능하나, (28ㄷ)이 가능한 반면, (28ㄹ)은 불가능하다.

- (28) ㄱ. 철수가 책을 많이 가졌다.
 ㄴ. 철수가 책이 많이 있다.
 ㄷ. 철수가 책을 몰래/일부러 가졌다.
 ㄹ. *철수가 책이 몰래/일부러 있다.

(28ㄱ)이 가능한 것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소유 표현에는 존재 표현이 함의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8ㄷ, ㄹ)의 문법성 차이는 상태와 행위(동작) 표현의 차이이다. 곧 (28ㄷ)은 (소유) 행위를 표현한 것이고, (28ㄹ)은 (소유)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명령형과 청유형에서도 그 문법성이 차이가 난다. 대상역을 가지는 전형적인 남움직씨의 경우, 명령형, 청유형, 약속형이 가능한데, ‘가지다’와 ‘있다’는 이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 (29) ㄱ. (책을) 가져라/(책을) 가지자/(책을) 가지마
 ㄴ. *(책이) 있어라/*(책이) 있자/*(책이) 있으마
 ㄷ. (여기에) 있어라/(여기에) 있자/(여기에) 있으마

(29ㄱ)은 가능하나 (29ㄴ)이 불가능한 것은 ‘가지다’와 달리, ‘있다’는 행위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9ㄷ)에서 보는 것처럼, 존재 표현으로서의 일부 ‘있다’는 명령형, 청유형, 약속형이 가능하다. 이것은 존재풀이써 ‘있다’가 ‘존재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 (27ㄴ)에서는 주체역의 임자씨항이 [+의지]의 의미 자질을 가진 듯이 보이나, (27ㄷ)은 [-의지]이다. 따라서, ‘가지다’의 경우 주체역의 임자씨항은 [+유정]이라야 하지만, ‘있다’의 경우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유정]의 임자씨항도 가능하다.

- (30) ㄱ. *저 서점이 (우리가 찾는) 책을 가졌다.
 ㄴ. ?저 서점이 (우리가 찾는) 책이 있다.

(30ㄱ)은 불가능하나, (30ㄴ)은 문법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담화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

결국 전형적인 소유풀이씨인 '가지다'는 소유 행위를 표현하고, 소유 표현에 쓰이는 존재풀이씨 '있다'는 소유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역들을 달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풀이씨 분류에서 '소유'나 '존재'보다는 '상태'나 '행위'가 더 상위 개념이기 때문이다. (26)의 '있다' 의미역들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26') 있다 [상태주, 위치]

그리고, 소유 표현의 '있다'는 존재 표현의 '있다'와 마찬가지로 상태(동작이 아닌)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역들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13)과 (26')] 이것도 역시 상태와 행위에 따라 풀이씨를 크게 분류하는 전통적인 설명과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존재 상태의 '있다'와 소유 상태의 '있다'는 동일 의미역들에서 통어 구조만 달리 실현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연결 규칙 1, 2>로써 설명할 수 있다. 존재 표현의 통어 구조는 <연결 규칙 1>에 따라 '상태주역'의 임자씨함이 임자말로 실현되고, 소유 표현의 통어 구조는 <연결 규칙 2>에 따라 '위치역'의 임자씨함에 시점이 주어져서 그것이 계층성이 높은 임자말로 실현되고, '상태주역'의 임자씨함는 기움말로 실현되어 짜이는 것으로 본다. 앞의 (2)에서,

(2') ㄱ. 있다 [상태주, 위치]

ㄴ. 책이 철수에게 있다. (존재 표현)

임자말 상황말

ㄷ. 철수가 책이 있다. (소유 표현)

임자말 기움말

(2'ㄱ)은 상태 표현에 쓰이는 풀이씨 '있다'의 의미역들이고, (2'ㄴ)은 존재 표현, (2'ㄷ)은 소유 표현이다. (2'ㄴ)은 (10가)의 <연결 규칙1>에 의해 주체역을 받은 '책'이 그대로 임자말로 실현되고, (2'ㄷ)은 (10나)의 <연결 규칙2>에 의해 위치역인

‘철수’에 시점이 주어져서 그것이 임자말로 실현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 표현의 높임법이 존재 표현과 달리 실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 (31) 가. 할아버지께서 책이 있으시다/*계시다.
 나. 할아버지께서 방에 *있으시다/계시다.

전술한 바와 같이 (31가)에서 ‘있으시다’만 가능하고 ‘계시다’가 불가능한 이유는 소유 표현(위치역-임자말)이기 때문이다. (31나)은 ‘있으시다’가 불가능하고, ‘계시다’가 가능한 것은 존재 표현(상태주역-임자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 월들의 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다.

- (32) 가. 책이 철수에게 있다.
 나. 철수가 책이 있다.
 다. 철수에게 책이 있다.
 라. 철수가 책이 가방에 있다.

표면상 동일한 표현 같지만 (32나)은 소유 표현이고 (32다)은 존재 표현이다. (32다)은 그 기저형을 (32가)으로 볼 수 있다. (32가)과 (32나)의 차이는 동일 의미역틀에서 기저 구조가 생성될 때, <연결 규칙1, 2>에 따라 통어 구조가 달리 생성된 것이고, (32다)은 기저의 (32가)이 강조 등의 동기로 변형된 것이다.

(32'다) 철수_i에게 [책이 ti 있다].

(32라)은 ‘철수가’가 주재 자리에 실현된 것으로 ‘있다’와는 아무런 의미역 관계가 없다. ‘철수가’의 자리는 (32'다)의 ‘철수에게’ 자리처럼 비의미역 위치이며, 전체적으로 단순한 존재 표현에 불과하다.

박양규(1975)에서는 (32다)도 ‘소유를 겸한 소재’ 표현(우리의 소유 표현에 해당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33) 가. 저 사람에게 시계가 있다.

- ㄴ. 저 사람에게 내 시계가 있다.
 (34) ㄱ. 저 책상에 서랍이 있다.
 ㄴ. 저 책상에 시계가 있다.
 ㄷ. 저 책상에 내 시계가 있다.

위의 예는 박양규(1975)에서 약간 수정하여 가져온 것이다. (33)과 (34)의 차이는 위치역 임자씨항의 [±유정] 차이이다. (33)과 같이 위치역 임자씨항이 [+유정]일 경우, 소유의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33ㄴ)처럼 두 임자씨항 사이에 소유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단순한 존재 표현이라는 것이다. (34)는 위치역 임자씨항의 [-유정] 자질 때문에 대개 존재 표현이지만, (34ㄱ)과 같이 '양도할 수 없는 소유'의 경우에는 소유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4ㄴ)은 두 임자씨항의 의미 관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중의적이라고 보고, (34ㄷ)은 소유주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존재 표현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임자씨항의 의미 자질이나, 두 임자씨항의 의미 관계는 소유 표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 (35) ㄱ. 저 사람이 시계가 있다.
 ㄴ. 저 사람이 내 시계가 있다.
 ㄷ. 저 사람이 내 시계를 가졌다.
 (36) ㄱ. 저 책상이 서랍이 있다.
 ㄴ. *저 책상이 내 시계가 있다.
 ㄷ. *저 책상이 서랍을 가졌다.

(35)와 (33)를 비교해 보면, 역시 (33)는 존재 표현, (35)는 소유 표현으로 보이며, 이런 차이는 임자씨항의 의미 자질이나 두 임자씨항의 의미 관계와는 상관없이 통어 구조상의 차이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35ㄷ)의 경우 전형적인 소유 풀이씨 '가지다'로 표현되었는데, (35ㄴ)과 '소유'의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소유권의 개념이 아니더라도 임시 보관의 의미로서도 소유 표현을 할 수 있다. (33ㄴ)이 단순한 존재 표현인 것은 두 임자씨항의 분리가능성 때문이라기보다는 통어 구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6)에서 (36ㄱ)은 가능하나 (36ㄴ)은 불가능한 것은,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소유 상태와 소유 행위의 차이 때문이다. (36ㄴ)은 소유 행위의 표현이므로 임자말 임자씨항이 [+유정]의 자질을 가져야 한다. 이것 역시 ‘가지다’의 의미역들과 관련된 것이지, 임자씨항 사이의 의미 관계와는 상관 없다. 이 점은 (36ㄴ)의 가능성으로도 입증된다.

한편, (32ㄴ, ㄷ)을 동일한 통어 구조로 간주하는 논의가 있다. 연재훈(1996)에서는 (32ㄷ)의 ‘철수에게’ 구성이 전형적인 임자말이 갖는 통어적 특징을 갖추었으나 형태론적 특징이나 의미론적 특징은 갖지 못했기 때문에 비전형적인 임자말이라 보고 ‘여격 주어’¹⁷⁾라 했다. 이럴 경우, 사실상 (32ㄴ, ㄷ)의 통어 구조는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처럼 이동이 일어날 경우, (32ㄴ, ㄷ)은 차이를 보인다.

- (37) ㄱ. 철수에게 책이 있다.
 ㄴ. 책이 철수에게 있다.
 ㄷ. 철수가 책이 있다.
 ㄹ. 책이 # 철수가 있다.
 ㅁ. 책상에 책이 있다.

(37ㄱ, ㄴ)에서 두 임자씨항의 도치가 자유롭지만, (37ㄷ)의 경우, 두 임자씨항 사이에 휴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격 주어’로는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또, (37ㄱ, ㅁ)의 병행 관계를 달리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상태폴이씨 ‘있다’의 존재 표현과 소유 표현을 중심으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통어적 현상들을 살펴 보았다. 앞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있다’는 존재 상태, 소유 상태, 존재 행위를 나타낸다. 상태와 행위(동작)는

17) 이 논의의 틀 안에서는 위치역-임자말이다.

현상 자체의 성질이 다른 큰 구분이고 그에 따라 형태적 정보도 다르므로, 상태(존재/소유)를 타나내는 것을 '있다¹'로 행위(동작)를 나타내는 것을 '있다²'로 구분한다.

(2) '있다¹'의 의미역틀 : 있다 [상태주, 위치]

'있다²'의 의미역틀 : 있다 [행위주, 위치]

(3) 존재 표현과 소유 표현의 '있다'는 동일 의미역틀을 가진 하나의 어휘로 간주한다. 다만, 월로 사상될 때, 통어 구조를 달리 가지는 것으로 본다.

(4) 존재 표현(있다¹)은 <연결 규칙 1>에 따라 계층성이 높은 상태주 임자씨항이 계층성이 높은 임자말로 실현된 것이다.

(5) 소유 표현(있다¹)은 <연결 규칙 2>에 따라 위치역의 임자씨항에 시점이 주어져서 (의미역 층위는 낮지만) 그것이 통어 구조의 임자말로 실현된 것이다.

이 논의에서는 도움풀이씨로 쓰이는 '있다'(-어 있다/-고 있다)는 다루지 않았다.

참고문헌

- 김일웅(1984) 「풀이말의 결합가와 격」, 『한글』 제186호(1984년 겨울치)
- 김일웅(1988) 「시점과 풀이씨의 태」, 『파전 김무조 박사 화갑기념논총』
- 남기심·고영근(1989)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박선자(1990) 「불자리 가설과 우리말 때매김」, 『언어연구 제12집』, 부산대학교 어학연구소
- 박양규(1975) 「소유와 소재」, 『국어학(3)』, 국어학회, 탑출판사.
- 송복승(1995) 국어의 논항구조 연구, 보고서.
- 양정석(1995) 국어동사의 의미 분석과 연결 이론, 도서출판 박이정.
- 연재훈(1996) 「국어 여격주어 구문에 대한 범언어적 관점의 연구」, 『국어학 28』, 국어학회, 태학사.
- 유동석(1995) 국어의 매개변인 문법, 신구문화사.
- 이춘근(1997) 「격과 월성분의 연결에 대하여」, 우리말 연구회 여름교실 구두발표.

허 웅(1981) 언어학, 샘문화사.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I), 태학사.

홍재성 외(1997)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기초편), 두산동아.

Chafe, Wallace L.(1970)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Cook, Walter A.(1979) Case Grammer, Development of Matrix Model, Georgetown University

Gruber, Jeffrey S.(1976) Lexical Structures in Syntax and Semantics,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